

새빛캠 IR Letter

2025.05.12



CEO Message

“우리는 폐기물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자원을 다시 설계합니다.”

순환경제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새빛캠의 대표이사로 새롭게 취임한 이승진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CEO 자리를 맡는 것이 아니라,

새빛캠이라는 이름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책임을 맡습니다.

새빛캠은 지난 30여 년간 폐산·액상 폐기물의 정제 기술로 시작해,

전자·화학산업의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순환의 기술’을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로봇 등 차세대 산업을 움직이는

배터리 소재 순환의 핵심 기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새빛캠은 더 빠르고, 더 정밀하며, 더 의도적인 혁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CEO Message

첫째, 우리는 화학으로 리드합니다. 정밀함으로 이깁니다.

우리는 단순히 니켈과 리튬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비율, 농도, 순도까지 완벽하게 맞춘 재자원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구체 복합액과 배터리급 탄산리튬은, 이제 단지 재활용물이 아닌 완성된 제품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재료’가 아니라,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정밀한 공정 기술입니다.

둘째, 우리는 파트너와 함께 확장하지만, 누구도 따라 하지 않습니다.

새빛캠은 글로벌 제조기반 국가들과 함께

현지에 맞는 공정, 공급모델, 기술이식 전략을 설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정은 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SebitChem 공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술로 구별되는 솔루션 브랜드입니다.

셋째, 우리는 만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표준을 먼저 만들고, 먼저 실행하고, 먼저 입증합니다.

순환경제는 환경의 영역이 아니라, 산업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정제(refinement)로 구현하고,

그 시스템을 공정(process engineering)으로 설계합니다.

CEO Message

임직원 여러분, 고객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파트너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정의하고, 다시 연결하고, 다시 설계합니다.

30년의 정제 기술은 우리의 기반이었고,
앞으로의 30년은 우리가 주도하는 순환경제의 설계도입니다.

재처리가 아니라 전략으로,
정화가 아니라 정제로,
새빛캠은 전환의 시대를 리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주)새빛캠 대표이사

이승진